



눈썹철학관

姜南旭

소개글

사주, 궁합, 작명 봐드립니다^^

7222889@hanmail.net
rkdskadnr300@naver.com

목차

1	'온화해 보이기만 하지? 허나 대갓성도 바라거든?! 우릴 물로 보지말라규~강총~' 청토끼 을묘일주(乙卯)	4
2	'병오일주만큼 기복있진 않지만, 병오일주 못지않게 한 성격 하느니라!' 홍사(紅蛇) 정사일주(丁巳)	6
3	'극단적인 선택만 안했으면 30대부터 운(運)이 폼을텐데! 아쉽도다!' 故 장자연 사주 체크.	8
4	2013년 10월30일 Twitter 이야기	11
5	'삼척동자도 아는 그 이름, JYP, 연예인 기획사 사장님!' 박진영 사주 체크~!	13
6	'매사에 불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적토마(赤兔馬)! 60갑자의 강백호! 병오일주(丙午)!	16
7	용, 개, 소, 양(辰戌丑未)! 12간지의 관절같은 존재들이여!	19
8	사주명리학의 오행 십신(五行 十神)과 야구(野球) 타순????	22
9	2013년 10월29일 Twitter 이야기	24
10	'무술(武術)을 잘한다고 괜한 그들이 아니로다~!' 독선적이지만 호방한 황구(黃狗) 무술일주(戊戌)!	26

01

'온화해보이기만 하지? 허나 대갓성도 바라거든?! 우릴 물로 보지말라규~강총~' 청토끼을묘일주(乙卯)

'온화해 보이지만 하지? 하나 대갓성도 바라거든?! 우릴 물로 보지말라규~강총~' 청토끼 을묘일주(乙卯)

2013.10.31 22:51

을묘일주. 이번 시간에는 을묘일주 차례입니다. 제가 아는 여성분 중에 을묘일주 있습니다. 교회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 분 무슨 임원진이셨죠. 종교에 계신 분들이 늘상 그러시듯이, 매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선교활동이니, 교회 관련 행사에도 열성적으로 참석하시고, 믿의 사람들을 잘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덕(德) 있어보인다 했는데, 제가 장난삼아, 그 여성분에게 농담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느닷없이 썩소를 지으시며,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시더군요. 허걱...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왠지 교회의 리더로서 책임감은 느껴지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도 왠지 모르게, 외로움이나 허전함이 느껴지더군요. 왜냐면 그분이 암만 교회의 임원진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자신의 열성에 비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형상이었거든요.

을묘(乙卯)는 무릇 추운 동장군의 기세가 다 가시고, 춘녀(春女)의 화사한 봄 햇살이 감미로운 시기에 깊은 산속 웅달샘을 먹으러 굴속에서 풀밭으로 뛰어 나온 푸른 토끼의 형상입니다. '봄날은 온다'라는 캐치프라이즈에 딱 맞는 일주라고 해야 할까요? 따라서 봄기운에 걸맞게 매우 인정도 많고 부드러운 면서도, 봄토끼답게 온화한 기질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무릇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묘목이 같은 덩쿨나무로써, 하늘로 뻗어나가려는 기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마음 속의 원대한 꿈과 욕망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순수한 분들이 많으며,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일들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이를 추구하려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질 자체가 매우 온화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분들이 많고 의욕은 매사 넘치는 긍정적인 분들이지만, 역시나 의욕에 비해서 실천력이 뒤떨어 질 수 있고, 변덕이 심할 수도 있고, 너무 자만심이 넘쳐서 오히려 지구력이 약할 순 있겠는데요. 인내심과 지구력만 보완한다면 자신이 가는 길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게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외교수완도 뛰어나며, 다소 교활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예민한 기질이 있고, 어느 환경에 가든지간에 처음에는 다소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기반을 잡으면, 그 어떠한 동요없이 논리정연과 합리성으로 무장해 나가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쪽같은 편이기도 하지만, 다소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고 소심하며, 예민하므로 처음에는 다소 낮은 가리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한번 믿은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기만 하는 것 같지만 마음 속으로는 은근히 자신의 이익도 중시하는 경향도 강하고, 자신이 베푼 사람이 자신에게 똑같이 회답해 주지 않으면 매우 섭섭해 하기 때문에, 섭섭한 얘기를 남들에게 꺼내거나, 액션을 취해서 남들을 무안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한번 믿은 사람에게 잘해주다가, 오히려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보기도 한답니다. 예능기질이 다분하지만, 운(運)의 크리를 잘 못 타면, 허송세월만 보낼 수 있으며, 을묘일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활인업(活人業)에 종사하는게 좋습니다.

을묘일주 분들은 이성관계에 대해서 한번 믿으면 상대방에게 헌신적인 분들이고 아무지 분들이지만 다소 고집도 세고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화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을묘일주분들은 평생 이성관계를 조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눈썹철학관-

02

'병오일주만큼 기복있진 않지만, 병오일주 못지않게 한성격하느니라' 홍사(紅蛇) 정사일주(丁巳)

'병오일주만큼 기복있진 않지만, 병오일주 못지않게 한 성격 하느니라! 홍사(紅蛇) 정사일주(丁巳)

2013.10.31 17:26

이번 시간에는 정사일주 분들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지난시간에 병오일주에 이어서 정사일주 분들도 파이어맨 또는 파이어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오일주가 적토마라면, 정사일주는 불뱀이죠. 불을 이글이글 내뿜는 이무기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맹렬하게 평원을 질주하는 말과는 달리 뱀은 또아리를 틀고 몸을 은폐엄폐를 하면서, 요리조리 몸을 비비꼬며, 쏘다니곤 하지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고, 팔다리없는 지상 최강의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병오일주가 천방지축 행동대장 역할이라면, 정사일주는 같은 불덩어리 고집이여도, 왠지 병오일주에 비해서는 차분해 보이고, 오히려 걸과 속이 틀려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정화는 인내심을 의미하고, 겉모습을 상징하며, 지지의 사화는 다혈질과 활동성을 상징하는 속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은 무릇 예(禮)를 상징하니,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며, 예의범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매우 총명하며, 특히 표현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나 기술, 문학, 과학 분야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강렬한 욕구와 꿈을 간직한 사람이지만, 뱀이 또아리를 틀며, 몸을 은폐엄폐하며 몰래 먹잇감을 노리듯이, 이들은 겉으로 이를 숨기고 짐짓 활발하기만 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성품은 매우 쾌활하고, 사교적이며, 직선적인 성격이라서, 비록 인정을 많이 남들에게 베풀기도 잘 하면서도, 오히려 직설화법과 호통으로 인하여 타인들을 당황시키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남의 비밀을 폭로하여, 세치 혀로 타인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없고 투명한 있는그대로의 솔직한 성격으로 인해 오히려 타인들에게 진정성을 주어,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병오일주가 다소 왈가닥 스타일이라면, 정사일주는 나름대로 계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리판단력이 좋은 편이며, 외교수완이 능통하기 때문에, 출세나 성공도 빠를 수 있겠고, 한번 출세나 성공크리를 타면, 무한질주 할 운세도 타고났습니다.

상당히 실리를 챙기는 데 관심이 많긴 하여, 재물을 꾸준히 뚝뚝 하지만, 그 나름대로 허세, 허영심이나 인정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로 인해 돈을 많이 탕진하기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우렁차거나 힘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며, 애매모호한 것과 거짓됨을 싫어하는 똑 부러진 성격의 정사일주 분들은 그 힘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지만, 한가지 분야에 꾸준히 매진하는 데에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활동성이 강하거나, 혹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지 못하거나,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부터 나와서 낭패나 여러가지 시련, 하차 등을 맞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의 타고난 백공(엔터테이너) 기질을 발휘하고 꾸준히 지속력을 기른다면야 한 분야에서 베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겉은 강력하지만, 속은 인정이 많아서 남들에게도 나름 잘 베푸는 그들이겠습니다.

다소 허세기질이나 너무 직선적인 성격을 고치고 본인의 지나친 혈기왕성한 행동을 신중하게 바꾼다면야,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자, 활발히 활동하는 정력가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눈썹철학관-

03

'극단적인 선택만 안했으면 30대부터 운(運)이 폼을텐데! 아쉽도다! 故 장자연 사주 체크.

'극단적인 선택만 안했으면 30대부터 운(運)이 폼텐데! 아쉽도대! 故 장자연 사주 체크.

2013.10.31 08:48

2008년 꽃보다 남자에서 시청자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바로 그 다음해 성접대 스캔들로 인해서 2009년 안타깝게 향년 29세의 꽃다운 나이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한 故 장자연씨의 사주를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녀는 1980년 1월 25일 양력생일입니다.

日月年
丁丁己
酉丑未
생묘대

74	64	54	44	34	24	14	4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생	육	관	록	왕	쇠	병	사

매우 예술적인 기교도 뛰어나며,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한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오행을 보면, 역시나 그녀의 육신을 상징하는 한송이 꽃 또는 등불이 잘 피어 오르기 위해선, 역시나 목(木)이나 화(火)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부모님에 의한 덕(德)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맨 주먹으로 타향이나 객지에서 자수성가해야 할 운명구조를 타고난 그녀는 연주(年柱)에 천역성(天驛星)의 영향을 받게 되니, 평생 역마(驛馬)의 영향을 받게 되며, 굴곡과 풍파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타고난 성실함으로 잘 극복해 나간다면야, 30대 이후, 그리고 중장년기, 말년기 때의 나름대로의 행복한 인생이 예약되어 있었던 일생이었지만, 본인 스스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네요.

겉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속은 공허함을 느끼기 쉬웠던 그녀였으며, 인생을 느긋하게 즐기려고 하면서도, 실속을 챙기려는 의지가 엿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고집과 불굴의 투지도 엿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강했던 그녀여서, 어떤 물리적, 정신적 통제나 구속, 간섭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을 가능성도 있었겠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운세는 하늘이 돕고 있다는 천우신조의 운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토(土) 식신(食神)이 많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겠습니다. 식신(食神)은 보통 사주팔자 중에서 한개만 있으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살림살이나 밥그릇을 보장해주는 밥신(神)이라고 하거든요. 또한 창조적인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이것을 표현하여 수익효과로 창출해 내기도 하죠. 그래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주는 건전한 정신을 인간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선 식신(食神)이 너무 많게 되면,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질 않았었나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기운이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밥벌이를 위하여 지나치게 워커홀릭을 하다가 결국은 과로나 탈진을 하게되는 것이 바로 식신(食神)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신(食神)은 무언가를 표현해 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는 어린아이, 사랑스러운 미소년, 미소녀 등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식신(食神)이 많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매우 윗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매력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반대급부로 휘둘릴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상징하죠.

식신(食神)이 많은 분들은 자기 표현력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 무언가를 구상하고 창조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워낙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할것인지, 갈팡질팡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실천이 떨어질 수 있고, 식신(食神)은 어린아이같은 마음 즉 경솔하거나 혹은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행동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어떤 일을 경거망동으로 추진하거나, 남의 감언이설에 놀아나서,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역마의 별을 타고났기에, 그녀의 초년기는 자주 분주하고 이동, 이사도 많고 다사다난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주변인들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놀아나서, 사기나 배신을 당하는 일도 많았으리라 보입니다. 그녀는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냉정해 보이고 도도해 보이며, 고집이 세지만, 실상은 마음이 천진난만하고 양순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교활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故 장자연씨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실상은 모질지 못한 분이며, 실속을 중시하는 여성이지만, 역시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고, 주위 사람들의 감언이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상황에 놀아나서, 각종 비리나 부정에 연루될 수도 있는 사주였습니다. 그러나 장자연 스캔들이라는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터지게 되고, 원래 외로움을 잘타며, 마음이 모질지 못하지만 자존심이 워낙 강하여, 스스로 수치심을 느꼈을 장자연씨는 2009년 기축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성격 자체가 다소 깔끔함을 추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성절대라는 다소 지저분한 비리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이미지가 전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사실 하나를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무척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식신(食神)이란 것이 그녀에게 훼방꾼이 되고 2009년 기축년은 천간 지지 모두 식신의 해였기 때문에, 그녀가 각종 측근에 의한 비리에 연루될 수도 있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신이 재성을 도와주므로, 재물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씨의 의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녀는 천부적으로 귀가 얇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분위기에 놀아나 철저히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언제나 그랬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權)무죄 무권유죄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힘들고 외로울 지라도, 그녀 자신의 수치심을 이겨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그녀에게 있어서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30대 초반 이후부터는 나름 편안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크게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총명하고, 상대방을 매료시키는 매력에 찰찰 넘치는데다가, 사실상 재물복도 꿀릴데가 없었고, 동분서주로 활약하면서, 재물을 모아나가는 사주구조의 그녀였고, 중년기의 수많은 굴곡을 이겨낸다면, 말년에는 그녀 자신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얻은 견문과 지혜로써 인생을 나름대로 아름답게 정리해 나갈 운(運)으로 보이는데요. 그녀는 구체적인 운명을 스스로 발로 걸어차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숙명까지도 거부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야 말았습니다. 불쌍한 그녀이지만, 한편으로 그녀는 자살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수치심이 가장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를 새겨서 열심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명예와 재물을 얻어야 할 장자연씨. 그녀가 세상을 떠난지 5년째 되는 해이고 이제 좀 있으면 6주기가 오겠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좋은 운명을 받고 환생하길 바랍니다. 한(恨)을 남긴채 세상을 등진 그녀여 ~

-눈썹철학관-

04

2013년 10월30일 Twitter 이야기

2013년 10월30일 Twitter 이야기

2013.10.30 23:59



zxcv30000 00:06 | [twitter](#)

사주명리학의 오행 십신(五行 十神)과 야구(野球) 타순????: 요즘 한국시리즈라든지 월드시리즈가 인기던데,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사주명리학에 등장하는 오행 십신들이 만일 야구팀을.. <http://t.co/kFeQegRfV8>



zxcv30000 00:07 | [twitter](#)

사주명리학의 오행 십신(五行 十神)과 야구(野球) 타순???? <http://t.co/0cnDDjbQHW>



zxcv30000 09:51 | [twitter](#)

용, 개, 소, 양(辰戌丑未)! 12간지의 관절같은 존재들이여! : 사주명리학자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가장 어렵다는 진술축미가 있습니다. 각각 12간지의 용과 견공, 우공, 양을.. <http://t.co/B744T9F13l>



zxcv30000 09:51 | [twitter](#)

용, 개, 소, 양(辰戌丑未)! 12간지의 관절같은 존재들이여! <http://t.co/kMaiZuCL8l>



zxcv30000 12:03 | [twitter](#)

'매사에 불갈아서 어디로 될지 모르는 적토마(赤兔馬)! 60갑자의 강백호! 병오일주(丙午): 더운 초여름철에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을 향하여 모락모락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황야를.. <http://t.co/m5fV68ct1Z>



zxcv30000 12:04 | [twitter](#)

'매사에 불갈아서 어디로 될지 모르는 적토마(赤兔馬)! 60갑자의 강백호! 병오.. <http://t.co/mW3RMQsECy>



zxcv30000 20:55 | [twitter](#)

'삼척동자도 아는 그 이름, JYP, 연예인 기획사 사장님! ' 박진영 사주 체크~! : 이번 시간은 박진영씨의 사주를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12월 13일 양력생일입니다... <http://t.co/VGpRcw2feA>



zxcv30000 20:56 | [twitter](#)

'삼척동자도 아는 그 이름, JYP, 연예인 기획사 사장님! ' 박진영 사주 체크.. <http://t.co/DjmispKz1v>

05

'삼척동자도 아는 그 이름, JYP, 연예인 기획사 사장님!' 박진영 사주 체크~!

'삼척동자도 아는 그 이름, JYP, 연예인 기획사 사장님!' 박진영 사주 체크~!

2013.10.30 20:55

이번 시간은 박진영씨의 사주를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12월 13일 양력생일입니다.

뭐 박진영씨하면 개성있는 외모, 뛰어난 예술적 기교, 만능 엔터테이너 기질에다가, 특히 1994년도를 강타했던(그때 전 초딩이었습니다.) 히트곡 '날 떠나지마~' 크~~~ 좋았죠. 뭐 그 외에도 히트곡들 많죠. '허니', '엘리베이터안에서', '청춘가' 뭐 주옥같은 히트곡들을 남겼으며, 분명히 90년대 2000년대 한국 예술계를 풍미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박진영씨의 사주를 체크해보겠습니다.

日月年
戊壬壬
寅子子
생태태

78	68	58	48	38	28	18	8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병	쇠	왕	록	관	옥	생	양

이 생일이 맞다면, 이 사주가 맞다면, 박진영씨의 육신은 무토(戊土)이며, 특수한 외격(外格)으로써, 토(土)가 수(水)에 따라가는 종재격(從財格)의 냄새가 풀풀 풍기네요. 무토(戊土)가 기름지기 위해선, 적당한 수(水)와 목(木), 금(金), 화(火)가 필요한데요. 박진영씨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구성하는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좋은 면과 나쁜 면은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주에 배치되어 있는 수(水) 재성(財星)들이 좋게도 작용하고 나쁘게도 작용한다고 보며, 배우자궁(宮)에 있는 인목(寅木)도 그 자체적으로는 병화(丙火)를 가지고 있으나, 역시 무토(戊土)에게 있어선,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 의한 덕(德)이나 내조가 매우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우자와 이별수도 도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水)는 곧 재성, 여자이고, 목(木)은 배우자궁(宮) 자리니까요. 어쨌든 제이와이피. 박진영씨는 매우 사고가 개방적이면서도, 위엄이 서려있는 기풍을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며, 예술적인 기교가 뛰어나고, 마음 속에 예술적, 문학적, 음악적, 환타지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많으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려는 느긋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라든지 자만심도 강한 편이며, 겉으로는 군자의 풍모를 지녔으나, 실제 속마음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과시욕이나 허영심, 위선 기질이 발동하기 쉬운 사주구조이며, 재물이나 여자에 대한 욕망이 대단한 분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지식한 면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만나면,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또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까탈스러운 모습도 엿볼 수 있고, 평상시에 박진영씨도 기획사 대표로써, 생각이 너무 많은 편이라서(달리 말하면 머릿속에 아이디어나 공상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피로를 자주 느끼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水) 재성(財星)이 많은 편인데, 생각이 많은 나머지, 피로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재성(財星)이 많다는 것은 두뇌가 매우 지적, 비상하고 총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영씨가 위의 사주가 맞다면, 그는 수(水)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서, 항상 재물과 이성을 어떻게 끌어모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당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섭리죠.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헛된 과욕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자만심으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는 유희이나 도박, 사치라든지, 허영기질, 혹은 이성의 유혹이나 타인의 감언이설에 놀아나서, 큰 곤역을 경험할 수도 있는 사주구조입니다.

배우자운(運)은 매우 좋은 편이지만, 본인 스스로 만족감을 못느끼는 성격이고 매우 까탈스러운데다가, 배우자와의 사이가 냉랭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번 경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水)가 지나치게 사주에 많이 분포되어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연히 토(土)로 이를 적당히 막아줘야하기도 해줘야겠죠. 우리가 흔히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정신(精神)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귀신 시나라까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용희신이라고 해서 좋고, 기구신이라고 무조건 안좋고 용희신 운(運)에는 잘나가고, 기구신 운(運)에는 하던 일도 안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이 천차만별이고, 인생을 딱 정확하게 구획할순 없듯이, 박진영씨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중용의 도(道), 주체력과 자제력을 상징하는 토(土)나 화(火)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水)가 이렇게 강력하니, 매우 다재다능하고 지혜로운 분임에는 틀림없으나, 풍류나 호색을 너무 밝히는 기질이 있고, 이성이나 재물을 탐할 수도 있는 것이며,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이나 열등감도 갖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지 못하는 번덕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질투심이나 열등감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들에 대해서 독설이나 비판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수(水)를 적당히 흡수해줄 목(木)이라든지 수(水)를 적당히 방어해줄 토(土)라든지, 이런 오행(五行)들이 박진영씨에게겐 필요해 보입니다.

박진영씨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는 매우 남부럽지 않게 유복하게 살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체적으로 동분서주하며 밖으로 쏘다니길 좋아하는 성격에다가 사치나 유희에도 민감한 깔꿈덩어리며 멋쟁이라는 것을 사주구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요. 역시 감각이 살아있고, 쿨한 면모도 있고 남들과 친화력도 뛰어나면서도, 의외로 고지식하고 고상하며, 융통성이 모자라고, 또한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명예를 늘 중시하는 분이며, 권위욕이 강한 보스기질의 분이면서도, 감정적으로 욱하면 폭발하기 쉬운 성격도 가지고 있고, 허세기질이 남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성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오행으로 치우치다 보면 성격적인 결함이나 문제점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박진영씨 같은 경우에는 무인일주(戊寅)이기 때문에, 지지의 인목이 천간의 무토를 극하니, 윗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할 수도 있고, 항상 마음이 불안정해지기도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보려는 야심이 있지만, 자주 심적갈등을 겪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듯, 위장하려는 기질도 교묘한 분입니다.

산만한 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면성실한 분이기도 하며, 늘 움직이고 활동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JYP는 전반적으로 운세는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릴 위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게될 운세가 사주구조에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혼을 했다죠. 박진영씨는 이것을 아셔야할 것입니다. 타고난 사주상,(만일 저 생일, 사주가 맞으시다면) 어떤 배우자, 단짝을 만나시더라도, 물론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시겠지만, 본인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거나, 계속해서 색정을 탐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부부관계가 단란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냉랭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쇼윈도 부부로 남을 수도 있고 이별수도 강한 것입니다. 즉, 박진영씨는 이를 늘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매사에 술선수범하시는 리더이며, 고집은 강한 성품이지만, 신의를 중요히 여기니, 연예인 지망생들의 대부! 박진영씨는 앞으로 재물보다는 명예를 더욱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허세기질이나 허영심도 좋지 않죠. 정말 인생이란 이래서 힘든 것인가봅니다. 균형감각을 갖춘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하죠 ^^

-눈썹철학관-

06

'매사에 불같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적토마(赤兔馬)! 60갑자의 강백호! 병오일주(丙午)!

'매사에 불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적토마(赤兎馬)! 60갑자의 강백호! 병오일주(丙午)!'

2013.10.30 12:03

더운 초여름철에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을 향하여 모락모락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황야를 질주하는 적토마의 형상을 띤 병오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자일주와 계해일주가 워터맨이라면 병오일주는 화이어맨입니다. 불기둥이 용솟음치는 불의 고집 중의 고집이죠. 양인(羊刃)이라는 오기와 독기가 서려 있는 병오일주들은 말 그대로 슬램덩크의 주인공 강백호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우 이들은 그 누구도 못말리는 용맹무쌍한 기질이 많습니다. 화(火)의 성격이 극대와 되는 것이죠. 강백호의 머리색같이 빨간색이었던 것은 그 일본 만화작가분이 누구보다도 강백호의 성격을 잘 표현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 강백호는 병오일주였을 것입니다.

병오일주들은 매사 진취적이고 의욕이 넘치며, 그 기상이 용맹합니다.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열혈병사 장혁씨도 병오일주이죠. 장혁씨를 보면 병오일주다운 특성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존심과 고집이 무척 강해 보이고, 성격이 매우 호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웬만하면,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 하는 욕구가 많은 사나이임을 알 수 있죠.

병오일주는 자기 표현력이 매우 적극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늘 대중의 관심이 되주기를 원하며, 이에 반대급부적으로 원맨쇼를 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상대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질투감이나 열등감을 품어, 경쟁의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밝고 명랑쾌활한 이들이며, 예의범절이 의외로 바른 편이고, 예의와 절도를 중시하지만,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기가 느껴지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매사에 불덩어리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재물보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떨어지게 보이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사주구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웬만하면 병오일주들은 거의 그러한 비스무레한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매우 이들은 조금한 성격에다가, 가끔 보수적인 사람들 눈에는 거슬릴수도 있는 분들인데요. 그 행동이 너무 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칫 건방지다는 이미지도 받을 수 있고, 가끔 뒷사람들과도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슬램덩크 만화에서 매일 강백호가 선배인 채치수한테 매일 갈굼당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거짓이 없고 매사에 솔직하고 직선적인 이들은 다소 자기 표현력이 지나쳐서 남들로부터 "재 왜 저러냐?" 라는 시선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되도록이면, 대중들의 관심을 끌수있는 연예인이나 예술가를 해야 어울립니다.

병오일주 하면 연상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강백호, 장혁, 데니스 로드먼, 아셀 푸이그. 모두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못말리는 천방지축이며, 열혈패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너무 에너지가 왕성한 나머지 주위사람들의 구설수에 자주 오르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백호는 가상의 인물이라서 논외로 치더라도, 실제로 장혁, 로드먼, 푸이그 모두 신기하게도 병오일주입니다. 병오일주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들이며, 화려하고 미적(美的)인 것을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허영심이나 허세기질이 60갑자 중에서 최고이죠.

자칭 베스트라고 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인들을 자연스레 무시하고 깔보기도 쉽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라 쉽게 쉽게 친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의 감정기복과 고집, 거만함으로 인하여 어제의 동료와 쉽게 적이나 소원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약점도 강합니다.

매우 변덕도 심할뿐만 아니라, 일을 강하게 추진하지만, 흥미가 떨어지면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며, 쾌락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사치나 낭비, 도박, 유흥에도 거침없이 지갑을 열 분들이며,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룬싸롱이나 텐프로 같은 비싼 가격을 쥐야하는 성매매 업소에도 거침없이 출입하기도 합니다. 혹은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도박을 마치 공기를 흡입하듯이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병오일주들의 최대의 약점인 것입니다. 너무 쿨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해야하나요.

따라서 무리하게 무언가를 추진하는 저돌성과 지나친 과격함이 따르기에, 이에 따라서 신중함이 결여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잦은 굴곡과 파장이 따르기 쉽다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감정의 기복이 들쭉날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나 난관을 뚫어가는 재치나 의지는 강력하지만,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 출신으로써 한때 두산의 임태훈 선수와의 스캔들 사건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한故 송지선 아나운서, 그리고 1986년 OB베어스(현 두산베어스) 포수였지만, 주전포수였던 김경문이나 조범현같은 걸출한 포

수들에게 밀려서, 비관자살을 선택한, 故 김영신 포수도 모두 병오일주(丙午)입니다.

불이라는 물질은 무릇 그 세력이 번지는 속도가 그 어떠한 오행보다 맹렬하고 빠르지만, 그만큼 소거되어 꺼지는 순간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병오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이러한 성향을 스스로 잘 이해하시고,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기 쉽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자제해 나가시고 인내심과 신중함으로 대처하셔야 길(吉)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병오일주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매사 자기중심적이고, 배우자를 의심하기 쉬워서 겉으로 볼땐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만족감을 완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이기려는 성향이 강하고, 의심하기 때문이죠.

-눈썹철학관-

07

용, 개, 소, 양(辰戌丑未)! 12간지의 관절같은 존재들이여!

용, 개, 소, 양(辰戌丑未) 12간지의 관절같은 존재들이여!

2013.10.30 09:51

사주명리학자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가장 어렵다는 진술축미가 있습니다. 각각 12간지의 용과 견공, 우공, 양을 상징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토(土)의 성분으로써, 다섯가지 오행 중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고, 과도기의 성격을 지녀서, 어느 한쪽의 성분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한 성분을 가졌으며, 사주원국의 상황에 따라서 성질이 자주 왔다갔다 하니깐, 사주명리학자들이 다루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비유해보자면, 사주명리학자분들이 남자라면, 진술축미는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여자의 마음이라고 해야할까요? ^^

진(辰)은 가색지토(稼穡之土)를 상징합니다. 즉 곡색을 심고 거두기에 안성맞춤인 풍요롭고 기름진 대지(大地)를 상징합니다. 한편으로는 꽃과 나무, 동식물을 아우르는 대지의 여신 데미테르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고, 계절의 여왕인 5월달을 맞이하면서, 열어 붙어 있던 황무지 토양은 이제 산천초목이 생명의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활기를 띄게되는 발판인 진토(辰土)로 변하는 것입니다. 진토(辰土)는 생기가 넘치는 토양이며, 물기도 적당히 자리잡은 토양으로써 월주(月柱)에 자리잡고 있다면 봄을 상징하는 목(木)의 기상으로 있으며, 대체적으로 토(土)의 성질을 간직하고 있는 토양이라 하겠습니다. 진토를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용을 상징하는 완벽주의와 이상주의라고나 해야할까요? 글고 가색지토이므로 노력에 대한 댓가를 상징합니다.

술(戌)은 나머지 세개의 토(土)들 중에서 가장 분석하기가 까다로우며, 한기와 열기를 함께 간직하고 있어, 수시로 한기와 열기 사이를 왔다 갔다 동분서주하는 토양이라 하겠습니다. 진토가 안정적인 성격이라면, 술토는 매우 까다롭고 불안정한 성격이라고나 해야할까요? 진토가 매우 의지가 끈고 비교적 정적(靜的)이라면, 술토는 매우 행동적이고, 동적(動的)이라고 해야합니다. 술토는 서유기에 나오는 화염산(火炎山)이나 애리조나 사막과 같은 건조한 사막산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광물이나 금속 같은 지하자원들을 머금고 저장해 나가는 땅이기도 합니다. 물기가 없고 오히려 뜨거운 열기가 용솨음치고 있고, 한편으로는 차갑고 날카로운 금(金)의 성분이 꿈틀거리고 있으므로, 진토가 명예롭고 숭수범하는 말아들이라면, 술토는 호시탐탐 말아들의 자리를 노리는 둘째아들이라고나 해야할까요. 술토의 성격이 이렇게 들쭉날쭉 이중인격이며, 대체적으로 날카롭고도, 을씨년스럽기 때문에 12간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야심가답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극적인 인생을 사는 동물로 개를 꼽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축(丑)은 토(土) 4형제 중에서 셋째로써, 겨울의 땅을 상징합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참호 속에서~라는 군가가 생각나는군요. 즉 그 참호가 바로 축토입니다. 만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축축하죠. 차갑고요. 축토(丑土)는 우리가 학교시절 지리시간에 귀찮도록 배우는 시베리아 툰드라 같은 토양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툰드라에 대해서 배워보겠어~ 라고 지리선생님이 말씀하셨죠. ㅎㅎ 어쨌든, 얼어붙은 땅이고 황무지 중의 황무지이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도 금방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물론 인동초들만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긴 하죠. 북극이나 남극의 빙판도 축토(丑土)에 해당합니다. 헌데 안타까운 것은 지구 온난화의 추세로 축토가 서서히 그 세력이 시들시들해져 간다는 냉정한 현실이 안타깝긴 하군요. 축토(丑土)는 차가운 물(水)의 기운이 워낙 강한 토양이라서, 사실상 월주(月柱)에 있으면 거의 수(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토(丑土)는 묘궁(墓宮)에 해당하며, 보수적이고 계산적이며, 수리적이며 내성적인 성격에 해당하겠습니다. 수(水)와 매우 절친한 것이죠. 축토의 주인공은 소이기 때문에, 소답게 우직하고 근면한 측면을 엿볼 수 있으니, 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근성 있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셋째아들다운 모습이로군요.

미(未)는 토(土) 4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늦여름의 땅으로써, 뜨거운 토양 즉 사막의 모래땅같은 황무지,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가물은 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형인 축토가 수(水)와 친한 반면에 미토는 화(火)와 절친하며, 월주(月柱)에 위치해 있다면, 화(火)의 기운을 이글이글 내뿜습니다. 천역성(天驛星)을 상징하는 미토(未土)는 역시 토(土)와 화(火)의 성향을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서, 사주명리학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놔다 하는 토(土) 변덕 4형제 중의 막내라고 하겠습니다. 막내일수록 애교가 있어야 정석인데, 어째 미토(未土)란 녀석은 애교는 말고, 심술성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리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역마의 기질이 강하므로, 성취욕구나 정복욕구가 강해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과

격해지기도 하겠군요. 형들인 진토, 술토, 축토가 모든 것을 나눠 가지고 막내 뒤편은 빼먹는 것은 눈뜨고도 못보는 성깔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화약(火藥)을 간직하고 있는 토(土)인 것입니다. 본래 양(羊)이라는 동물은 평상시에는 온순, 온화의 대명사이지만, 한번 화가 났다하면, 웬만한 동물보다도 더 무섭게 돌변하는 동물이죠. 다소 물기가 없고 메마르고 무정(無情)한 성격이 있으므로, 고집이 강하고, 어딘가 모르개, 정은 가질 않는 토양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뒤편을 챙기려는 끈기와 희망적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은 높이 살만하겠습니다. 하지만 막내답게, 진술축미 4형제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진술축미 토(土) 운(運)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게 되면 대개 인간들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나 변화를 맞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눈썹철학관-

08

사주명리학의오행십신(五行十神)과야구(野球)타순????

사주명리학의 오행 십신(五行十神)과 야구(野球) 타순????

2013.10.30 00:06

요즘 한국시리즈라든지 월드시리즈가 인기던데,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사주명리학에 등장하는 오행 십신들이 만일 야구팀을 이룬다면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어느 포지션에 맞을지 대입해 보았습니다.

1번타자 ⇨ 겁재(劫財) or 계수(癸水) or 신금(申金) : 약삭빠르고 예리한 상황판단능력과 민첩하리 예리한 감수성, 루(壘)를 반드시 약탈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지모가 필요하겠습니다

2번타자 ⇨ 편인(偏印) or 을목(乙木) or 축토(丑土) : 1번과 3번 사이를 중후하게 이어줄 수 있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요하는 타자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이 뛰어난 타자가 필요하겠죠

3번타자 ⇨ 편재(偏財) or 경금(庚金) or 오화(午火) : 클린업트리오의 선두주자, 불같은 화력의 방망이, 강인함과 굳건함, 편재(偏財)같은 왕성하고도 사정거리가 넓은 장타력이 필요하겠죠

4번타자 ⇨ 편관(偏官) or 병화(丙火) or 술토(戌土) : 클린업트리오의 중심타선, 가장 파괴력과 힘을 지닌 4번타자에 어울리는 삼인방

5번타자 ⇨ 정관(正官) or 임수(壬水) or 진토(辰土) : 클린업트리오의 마지막주자, 4번이 한번 휩쓸고 간 자리 뒤에 다시 쓰나미같이 몰아치는 괴력과 하위타순을 이끌어 주는 묵직한 과도기

6번타자 ⇨ 식신(食神) or 무토(戊土) or 유금(酉金) : 하위타순의 시작, 이제는 새로운 타순의 전환기를 꾸려 나가야 하는 타순

7번타자 ⇨ 정재(正財) or 정화(丁火) or 자수(子水) : 하위타순의 두번째, 공격 위주보다는 안정을 피하여야 하는 플레이가 필요

8번타자 ⇨ 정인(正印) or 갑목(甲木) or 묘목(卯木) : 보통 포수가 배치되는 자리인 만큼 공격력 보다는 팀을 리드해 나가는 의지,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함

9번타자 ⇨ 상관(傷官) or 기토(己土) or 사화(巳火) : 1번타자 못지않은 선관과 활동력, 임기응변이 필요한 야무진 타자여야함

투수 ⇨ 비견(比肩) or 신금(辛金) or 인목(寅木) : 야구경기의 실질적인 주인공, 타자들을 압도하는 예리한 제구력과 많은 공을 뿌릴 수 있는 강건함과 지구력이 있어야겠죠

-눈썹철학관-

09

2013년 10월29일 Twitter 이야기

2013년 10월29일 Twitter 이야기

2013.10.29 23:59



zxcv30000 10:43 | [twitter](#)

'편견을 깨뜨리고 가난한 예술가를 남편으로 맞이함이어!' 아나운서 고민정 사주 체크.: 보통 여성들은 배우자감을 고를때 1순위로 경제적 능력을 꼽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자신을 .. <http://t.co/kToUFbHwL8>



zxcv30000 10:44 | [twitter](#)

'편견을 깨뜨리고 가난한 예술가를 남편으로 맞이함이어!' 아나운서 고민정 사주 체크. <http://t.co/HjbFsb6bhN>



zxcv30000 12:33 | [twitter](#)

'무술(武術)을 잘한다고 괜한 그들이 아니로다~!' 독선적이지만 호방한 황구(黃狗) 무술일주(戊戌)! 이번에는 누런 개. 무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쓸쓸하고 차가우면서도.. <http://t.co/fskxRNE5Ny>



zxcv30000 12:33 | [twitter](#)

'무술(武術)을 잘한다고 괜한 그들이 아니로다~!' 독선적이지만 호방한 황구(黃狗).. <http://t.co/ALXorCmdOd>

10

'무술(武術)을 잘한다고 괜한 그들이 아니로다~! 독선적이지만 호방한 황구(黃狗) 무술일주(戊戌)!

'무술(武術)을 잘한다고 괜한 그들이 아니로다~! 독선적이지만 호방한 황구(黃狗) 무술일주(戊戌)!

2013.10.29 12:33

이번에는 누런 개. 무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쓸쓸하고 차가우면서도, 황량하기 짝이 없는 대지(大地) 위에서 쾅쾅 짓으며, 날뛰고 있는 덩고(호주의 들개종류입니다.) 형상을 띠고 있는 무술일주 분들은 그 특성 자체가 호방과 독선, 야망달성을 위한 투쟁 이 세가지라 하겠습니까.

이들은 전형적인 괴강살로써, 60갑자 6대 제왕(임진, 경진, 경술, 임술, 무진, 무술) 중의 한 분들입니다. 12간지 중에서는 사람에게 가장 멀기만 하고 사람들의 상상속에서나 존재하는 용(龍)과 12간지 중에서 사람과 가장 가깝고 사람들의 집안에서 털만 날리거나 하는(?) 견공(犬公)들이 가장 만물의 중심과 과도기를 이루게 됩니다.

토(土) 비겁(比劫)이 비겁을 바라본 매우 호방하고 자존심과 고집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인덕(人德)은 다소 모자라지만, 그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극복해 내는 강인한 멘탈의 일주들이라 하겠으며, 의협심과 신의를 중시하는 호걸들입니다. 또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몸과 마음이 분주한 분들이 많으며, 타인과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기에, 어제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아군과 적군이 수시로 바뀌므로, 터놓고 마음을 나눌 동료가 그리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우 고독한 분들이죠. 홀로만의 외로운 투쟁을 하는 분들입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기질이 서려있으므로, 남을 자동적으로 깔보고, 제압하고자 하는 기질이 작용하며, 공주병, 왕자병 기질이 서려있습니다. 이른바 허세기질이지요. 대인관계는 매우 폭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투시력이나 관찰력이 예리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점도 잘 발견해 낼 줄 알기 때문에, 지나친 간섭이나 강요, 잔소리, 갈굼을 퍼붓는 편이기도 합니다. 비록 매우 편협되고 아집스러운 성향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향도 허다하지만, 사회생활을 분주하게 수행해 나가면서도, 자기 실속은 실리적으로 챙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굼떠보이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민첩한 분들이 많으며, 운동신경이 뛰어나거나 정신력이 굳센 분들입니다. 또한 신(神)이나 초월적인 것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도 있으며, 통찰력과 사물이나 상황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혜안을 지녔습니다. 다소 권위주의적인 면모를 앞세우는 분들이 많으며, 때로는 어려운 타인을 위해서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노력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실속은 없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어떤 욕구불만이 생겨도 제대로 표출을 못하고 속으로 삭이지만, 어느 순간 폭발하면 무섭게 돌변해 버리는 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인간세계의 포식자이면서도 봉사자 기질을 지닌 무술일주 분들의 최대 특성들이라 하겠습니다.

-눈썹철학관-

눈썹철학관

블로그

눈썹철학관

<http://blog.daum.net/zxcv30000>

저자

姜南旭

발행일

2013.10.31 23:26:00

 블로그